

이 사람

구기자 주 제조
기능 보유자
임 영 순씨 (54)



인근동네에서는 벌써 짜하니 소문나 있는 독특한 구기자 술 맛. 임씨가 소개하는 구기자술 담그는 법은 이렇다. 우선, 햇볕에 잘 말린 구기자에 지골피와 두충을 넣고 하루종일 푹 삶는다. 허물허물해질 정도 되면

◇임씨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구기자술을 제조, 시중에 판매할 계획이다.

며, 이를 위해 주류허가도 신청해 놓은 상태다.

『구기자술을 팔아서 큰 돈을 벌겠

전통식품 명인으로 지정 받아

불을 끄고 어느정도 식은 다음 구기자 건더기를 잘게 으갠다. 여기에 준비한 꼬드밥과 잘 발효시킨 누룩, 엿기름 등을 넣으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구기자술은 항아리속에서 보름정도 지나야 제맛이 우리납니다.』

술을 걸를때도 현대식으로 기계로 짜내지 않고 옛부터 내려오는 방식 그대로 용수(대나무로 촘촘히 엮은 그릇)를 이용하는 것도 특징.

구기자농사는 물론이고 감, 사과, 배, 두충 등 여러가지 과수재배도 겸한다는 그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구기자술을 제조 시중에 판매할 생각이

다는 욕심은 없어요. 단지 이 지역 구기자 소비가 늘어서 농가소득증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지요.』

청양군 농촌지도소 부녀회원 모임인 생활개선회 회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구기자를 이용한 다림차와 구기자한과를 고안하기도 한 그는, 지난해 4월에는 충남에서 홍일점으로 농업발전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우리 전통식품을 계승·발전시키고 가공기능인의 명예를 위해 지난 94년 명인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지금까지 임영순씨를 포함 모두 12명이다.

잠업, 약제 산업으로 전환

건강보조식품으로 누에가루 소비 급증

잠업의 생산형태가 누에와, 뽕잎을 이용한 약제산업으로 급속 전환하고 있다.

지난해, 누에에 혈당강화제 성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당뇨병 치료제로 누에가루에 대한 소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잠사회에 따르면 지난 94년 모두 3만7천상자의 누에가 사육돼 9백11t의 고치가 수매됐으나 지난해 수매물량은 3만2천상자에서 2백10t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3만2천상자에서 나올 수 있는 고치 생산량이 7백88t 정도임을 감안할때 대부분의 누에는 혈당강화제 등의 건강보조식품으로 소비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고치 수매값은 2등급 기준으로 1kg에 봄누에는 8천1백8원, 가을누에는 7천6백57원인데 비해 약용으로 판매될 경우 시중에서 누에분말은 1kg에 8만~10만원을 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누에분말 1kg을 생산하기 위해선 5령3일기 기준으로 8kg정도의 누에가 필요하다. 따라서 누에 한상자를 키워 공판에 내는 것보다 약용으로 판매하는 것이 10만원정도 소득이 높은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한잠사회는 올해 봄누에 사육에 상량은 3월말 현재 2만5천여 상자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1만5백상자에 비해 감절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어든 물어보세요

문 봄철 건조기에 주요 약용작물인 황기, 당귀, 지황, 시호등의 포장관리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우리나라의 기후특성상 약용작물의 파종직후인 4월 하순~5월 상순까지는 비가 거의 오지 않아 대체로 약용작물 파종후 토양의 건조로 인하여 종자 발아율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자 파종작물인 황기, 시호는 파종후 짚으로 반드시 피복하여 토양수분을 유지하며 종자발아가 잘 될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2/3정도

봄철 건조기 약용작물 포장관리법

가 출현되면 벗짚은 건어야 하며 너무 이르거나 빠르면 초기 입묘가 어렵습니다.

당귀, 지황과 같은 묘를 이식하거나 영양제를 심는 작물일 경우는 가능한 정식후 관수를 해주는 것이 좋으며 동시에 토양수분유지를 위하여 왕겨, 벗짚등을 피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적 봄철 건조기에 잘 견디는 약용작물은 백편두, 결명자, 작약, 목단, 천궁, 지황, 홍화, 맥문동등이며 시호, 당귀, 황기, 현삼, 디기탈리스등은 건조에 아주 약한 작물이므로 초기 관리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농진청 작물시험장 김춘식 연구원>

반하 한사람의 수집상이 일주일 정도 수집해야 겨우 50근 정도를 출하할 수 있을 정도로 반하는 요즘 극심한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값도 근당 2만원선으로 근당 9천~9천5백원 선이던 지난해에 비해, 지난달 1만4천원선에 비해 2배 가까이 경중 올랐다.

지난해 값싼 수입산의 영향으로 반하값이 폭락하자 농가들이 재배를 기피함으로써 재배면적이 예년의 10분의 1로 줄어든 때문이다. 시세회복으로 올해는 다소 재배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2~3년 후에나 수확이 가능해, 시세는 당분간 보험세를 이룰 전망이다.

구기자 「거래되는 것이 값」이라고 말할 정도로 매매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세형성이 어려운 상황.

청양구기자는 근당 7천~7천5백원선, 진도산은 8천원~8천5백원선으로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금쯤은 물량이 생산 농가와 단순가공업자의 손에서는 이미 떠난 상태기 때문



에 앞으로의 시세 변동은 약업사를 운영하는 도매업자들의 움직임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거래부진한 가운데 시세는 당분간 보험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천궁 토천궁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한 품목. 지난해 이맘때 1만원~1만1천원선에 거래되던 토천궁 시세가 지금 현재 근당 4천7백원선에 산지 거래되고 있다. 일천궁은 4천5백원선으로 지난달과 보험세다.

당귀 현재 산지에서 거래되고 있는 당귀 도매시세는 근당 2천4백원선(토당귀)이다. 작년 재고량이 아직도 평창군 진부에서만 10만~20만근 정도 남아 있다는 산지인의 전언.

지난해 당귀값 폭락으로 당귀 대신 감자 등 채소류쪽으로 전업하는 농가들이 많아지면서 올 한해 당귀 파종면적은 현격히 감소, 예년의 절반에도 못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회전반적인 경기침체 기류와 규격화 시행 여파로 소비량도 부진해 당귀값 바닥세는 한동안 계속 이어질 것이란 분석.

강활 중품으로 근당 3천2백원 선에 도매 거래되고 있다. 상품은 이보다 2~3백원 높은 3천4,5백원선에서 하품은 2천9백~3천원선이다. 강활 역시 작년 이맘때 가격인 4천5백~5천원 선에서 크게 하락함으로써, 올해는 농가에서 재배를 기피하고 있다. 그만큼 재배면적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

구기자, 당귀 거래부진 속 당분간 보험세